

基調論文을 참작한 意見

尹道根

本稿는 韓國建築家協會 78年度建築討論會 意見論文임

1. 오늘과 같은 建築의 量的發展에 對한 鼓舞的인 建築家의 立場과 未來를 向한 示唆, 그리고 技術의 能力과 知識과 經驗의 蓄積도 相當한 水準에 이르러 大型化 建築趨勢의 量的 供給에도 可能한 反面, 不安한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量的發展은 質的으로 또한 建築主나 建築家의 資質과 制度上의 問題를 생각하게 되며 建築家의 教育問題로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모두가 急速한 成長으로 因한 能力의 限界를 體驗하는 契機가 되고 建築家의 教育的 現實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機會인 것 같다.

이 時点에서 윤승중氏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縮小된 疑問속에 그 모든 問題들을 包含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建築家は 投資者나 企圖者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社會의 要求를 解決해야 하고 特別히 利用者들의 慾求를 充足시켜야 할 任務가 주어진다. 다시말하면 人間의 참다운 環境과 우리時代의 文化와 社會像을 創造해야 할 責任을 갖는다.

흔히 말하기를 建築家は 建築主에게, 建築主는 建築家에게 어떤 責任을 轉嫁하는 경우가 많다. 建築의 創意的 活動에 對한 不理解와 建築家에 對한 無理한 要求, 建築主의 水準과 能力, 制度上의 問題등, 社會風潮와 政治的 問題까지 어떤 連繫性을 갖게 된다. 한가지 分명한 事實은 依賴된 테마에 對한 建築家의 建築의 責任을 다 하고 있는가? 라는 疑問을 갖게 된다. 어떤 對象物을 建築家에게 依賴되었을 때, 建築的 解決을 建築的 空間世界는 우리의 독자적인 것이며, 누구도 侵犯할 수 없을 때 建築의 責任이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狀況에서 現代建築의 方向마저 저해하는 理由가 되기도 한다.

投資者나 企圖者는 建築家의 建築的 思考를 받아들이는 積極的인 의심을 가져야 하며, 建築家は 快適한, 能率的인, 오늘의 生活을 爲해서는 效率的인 建築解決이 되어야 할 것이다. 健全한 要求에서 創造的 建築思想을 內包含한 施工上, 使用上, 維持上, 經濟的 空間의 構築을 이룩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祖覺的 安全性 建築과 質과 品位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兩者 사이에 調和된 協力과 建築에 關係되는 制度上의 뒷받침(教育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文化水準 經濟的 水準의 一致에서 새로운 建築的 樣式을 期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建築家 教育은 制度上에서나 그 內容面에서 前近代的인 制度를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學問的 趨勢와 社會條件 變化에도 建築教育의 뚜렷한 方向設定이 缺如되고 教科內容의 改革없이 各大學別로 多樣한 教科 課程이 編成 運營되고 있다. 다만 最近에 이르러 實驗大學을 통한 建築教育改革의 問題가 활발히 論議되었을 뿐이다. 그 主된 內的 充實을 試圖하였고 大學 또는 系列別 募集에 依한 學生選拔을 通하여 學生의 專攻選拔의 融通性을 부여하며, 副專攻制를 積極的으로 活用하여 卒業生의 就業機會의 擴大와 學問의 視野를 넓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教育의 問題點을 大略 다섯가지로 축소하여 說明할 수 있다.

첫째 教育課程의 편성과 運營의 閉鎖性을 들 수 있다. 建築은 學問的 性格으로 專攻領域이 複合的이고 廣範圍할뿐 아니라 極히 多樣化되어 있고 社會進出에서 特性化 되어 있어 剛一的인 教育內容을 가지기 보다는 最小限의 共通部分만을 專攻必須로 하고 專攻選拔의 여유를 많이 들으므로 特定한 關心分野에 集中的인 教育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教育의 質的向上과 社會에서 專門知識人으로서, 建築家로서 資質을 갖출 수 있는 特性있는 教育이 要求된다.

둘째, 學問 相互間 및 教科相互間의 連繫가 부족하다. 建築은 綜合學問으로서, 또한 여러 分野의 領域에 속한 應用學問으로서 學問의 知識을 基盤으로 하기 때문에 學問間의 개방과 交流는 特別히 절실한 問題이다. 先修科目 制度의 活用을 效率的으로 하고 斷片的인 知識을 열기 보다는 綜合的인 思考能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建築으로서의 重要視되어야 한다.

셋째, 教育內容의 時代的 合當性과 社會的 適合性이 缺如되고 있다. 社會的 條件과 變化에 調和할 수 있도록 教育內容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狀態에 머물러 왔다.

네째, 學校間에 多様な 教科課程을 運營하고 있으며 學科內에서도 教科內容의 重複이나 教科目間的 不均衡과 配定上에 亂脈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統一된 흐름속에서 自律的인 特性을 살릴 수 있는 融通性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섯째, 教養科目과 專攻科目의 配定上에서 不均衡과 履修形態의 問題가 있다. 교양과목의 集中 配定과 履修는 必然的으로 專攻科目의 集中履修를 강요하게 됨으로써 교양과정을 단계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우며 效果的인 教育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한된 짧은 期間內에 過多한 전공학점을 取得하여야 할 경우 教育의 內的充實化를 期하기 어렵고 質의 探化보다도 量의인 面에 置重될 우려가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6年을 履修해야 되는 데 專攻科目을 짧은 期間에 集中的으로 이수하는 것은 考慮될 問題이다.

最近 歐美 建築系大學은 大部分 建築大學으로 독립 되는 趨勢에 있으며 教育은 教科目的 性質과 目的에 따라 教養, 一般敎學, 視覺基礎훈련, 歷史와 理論, 設計, 製圖, 建築技術, 都市計劃 등으로 要約되며 校外實習을 통한 現역 建築家의 教育參與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純粹教養科目의 比率이 우리나라와는 比重이 적은 反面, 社會系科目이 重視되고 있고, 建築의 重要한 기초과목인 모형, 色彩, 基礎디자인 등 建築家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이 強化되고 있다. 따라서 建築歷史와 理論分野가 多少큰 比重을 차지하고, 設計·製圖는 大部分의 大學에서 가장 重點的으로 다루고 있다. 建築技術分野는 特

定한 科目에 置重없이 比較적 均등한 分布를 보이고, 都市計劃 分野는 理論과 設計, 住宅地域計劃 科目이 重要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앞서말한 校外實習 및 職業分野는 現場 및 設計事務所 實習에 對한 教育이 重要해서 그야말로 産學協同體制에 依한 效率的 專門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과연 全國 建築科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設計事務所의 運營과 學點取得의 管理가 可能한가하는 疑問을 갖는다.

언젠가는 外國의 그러한 發展的 建築家 教育의 制度와 마찬가지로 施行될 것이 期待되는 點이다. 그리고 大學 教育過程 以後의 수련을 爲한 大學教育機能의 領域을 擴張하고 教授들의 實務經驗을 爲해서 제한된, 大學研究機關을 통한 어떤 프로젝트의 용역으로 建築人으로서 社會에 奉仕하는 機會가 주어져야 하는가? 라는 疑問을 갖게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建築界에는 問題가 있다.

프랑스가 그렇고 英國이 그렇듯이 오늘이야 말로 廣義로 開門되어야 할 建築의 共同運命에 있는 것이다.

以上 過去의 建築教育은 建築家가 必要로 하는 技術을 習得하는 것만으로 可能하였으며 오늘의 科學, 情報와 技術社會에서 建築創造에 必要한 專門知識은 建築家만의 知識의 限界를 넘어서고 있다.

建築家들 間의 팀워크로서 設計方法의 必要性은 더욱 增大되고 그에 對한 여러가지 對話를 통한 學問的 背景과 經驗을 통한 建築家로서 오늘의 社會에 指導的 役割이 되어야 할 것이다.

〈37頁에서 繼續〉

끝으로 韓國의 建築家의 像을 마음에 그려보고 싶다. 建築家는 어떤 자세로 일에 임하여야 겠고 建築家가 一般市民에게 어떤 印象을 주어왔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地上에 세워지는 建築物들의 建築家의 資質과 말을 表現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建築物은 萬人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워지고 오래도록 地上에 남게된다.

훌륭한 建築物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질때 建築家의 地位는 向上되고 建築家의 像이 뚜렷해질 것이다.

建築物이 모든사람의 評價의 대상이 됨과 同時에 建築家도 또한 萬人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線 하나 하나를 조심스럽게 긋는 科學者이며 藝術家로 자처하고 싶고 文化를 表現하는 役割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職業의 重要性을 다시 한번 實感하게 된다.